

영국, 연금저축 촉진을 위한 ‘사이드카 저축(Sidecar savings)’ 실험

임석희 연구원

요약

영국 국가고용저축신탁(NEST) 산하 연구원인 NEST Insight가 은퇴 대비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사이드카 저축(Sidecar savings)이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함. 사이드카 저축은 ‘비상금+연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저축으로서,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저축(처음에 본인이 설정한 목표치까지 비상금으로, 그 이후에는 연금으로 저축)됨. NEST Insight가 3년간 실험을 한 결과, 사이드카 저축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도움이 되며, 옵트아웃(Opt-out) 시스템이 가입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임이 나타남

- 사이드카 저축(Sidecar savings)은 ‘현재 비상금+은퇴 후 연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저축 방식으로, 영국 국가고용저축신탁(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 산하 연구원인 NEST Insight가 제안¹⁾함
 - 근로자가 Jars 계정²⁾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저축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비상금 계좌로 저축되고 목표치(근로자가 직접 설정)에 도달하면 연금 계좌로 저축됨
 - 연금으로 저축된 금액은 영국의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되는데, 이는 은퇴 후의 연금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비상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비상금 계좌부터 다시 저축이 되고 목표치에 도달하면 연금 계좌로 저축이 됨
 - 급여 기간마다 저축 금액과 목표치를 근로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경제사정과 선호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함
 - 영국 하원 보고서³⁾에 따르면, 세금 감면 혜택⁴⁾⁵⁾은 연금 납입금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비상금에는 제공되지 않음
 - 이는 연금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사이드카 저축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은 영국 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서인데, 저소득층은 대체로 현재의 유동자금을 긴급히 필요로 해서⁶⁾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저소득층 가구들의 경제적 문제는 현재의 유동자금과 미래의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저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음

1) 2016년 허버드 케네디 스쿨의 Behavior Insight Group에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동저축과 은퇴저축을 결합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고, 2019~2022년까지 테스트하고 2023년 4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함
 2) 사이드카 저축 실험을 위한 시범적 계정임. Jars 계좌가 비상금이 입금되는 계좌임
 3) Rajiv Prabhakar(2021. 12. 21), “Sidecar Savings”, House of Commons Library, p. 7
 4) 연간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납입금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감면됨
 5) 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금 감면은 원천징수 방식임. 즉 NEST가 연금 납입금을 수령한 후 적격 근로자에 대해 정부에 세금 감면을 청구함
 6) 이를 현재 편향(Present Bias)이라고 함. 미래에 얻는 것보다 현재 얻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말함

- 영국 재무연금청(Money and Pensions Service; MaPS)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약 1/4이 당장 지불 가능한 현금 300파운드가 없으며, 약 절반이 대출 등을 연체한 경험이 있음
- NEST Insigh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직장인의 86%가 비상시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함
- 사이드카 저축은 이를 행동경제학에 근거하여 현재의 유동자금과 현금화하기 어려운 은퇴저축을 하나로 결합하는 접근 방식으로, 가입 장벽을 낮추자는 데서 나온 아이디어임
 - 저소득층은 현재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미래를 위한 저축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비상시에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사이드카가 있다면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즉, 비상금은 즉시 인출 가능하게 하고, 가입자 개인이 저축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입 장벽을 낮춤

○ NEST Insight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Jars 계정으로 사이드카 저축 실험을 한 결과,⁷⁾ 사이드카 저축이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도움이 되고, 옵트아웃(Opt-out)⁸⁾ 시스템이 저축 가입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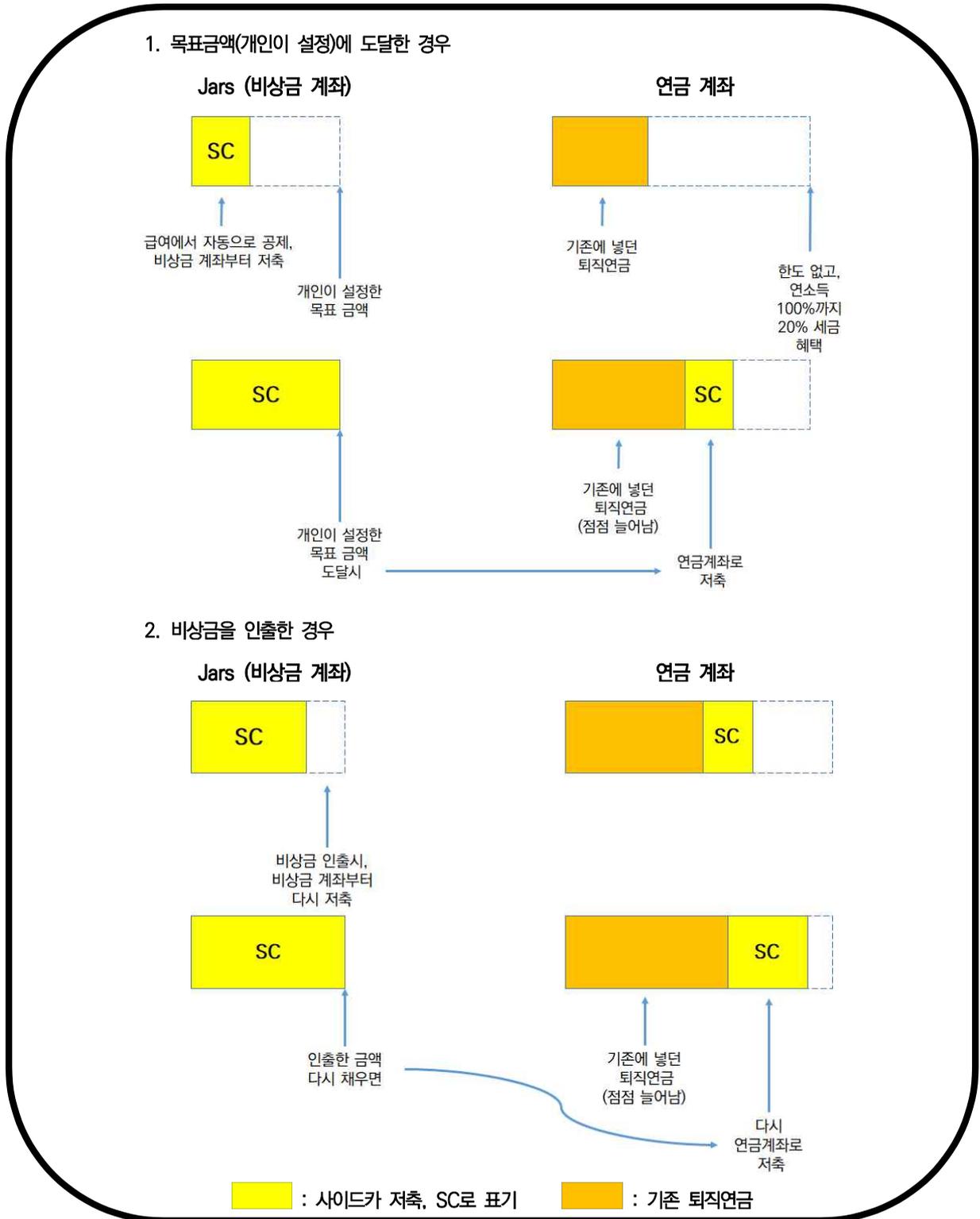
- NES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Jars 계정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Jars 계정 가입 적격자 중 사이드카 저축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6%였는데, 고소득 근로자는 35%인 반면, 저소득 근로자는 59%였음
- Jars 계정은 급여에서 공제되어 저축 계좌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데, 이 방식이 근로자가 저축을 계속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가입 후 잊어버리고 있다보면 저축이 되어있는 방식임
 - 18개월 후, Jars 계정의 99%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3/4 정도가 저축이 계속 납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Jars 계정의 가입률이 1%⁹⁾로 매우 낮았는데,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옵트아웃(Opt-out) 시스템 도입을 권장함
 - 초기연구에 의하면, 옵트인에서 옵트아웃 시스템으로 가입 방식을 전환 시 저축 참여가 최대 5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쉽게 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저축을 시작하더라도 즉시 인출 가능한 돈이 있다는 점에서 굳이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7) 2023년 4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함; Nest Insight(2023. 4), "Workplace sidecar saving in action"

8) 옵트아웃(Opt-out): 선가입 후탈퇴, 모두 가입을 시킨 후, 탈퇴 의사를 밝힌 사람만 탈퇴시키는 방식임(※ 옵트인(Opt-in): 선동의 후가입,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가입되는 방식임)

9) Jars 실험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 참여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서에서 언급하였음

〈그림 1〉 사이드카 저축 개념도



자료 : 영국 NEST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